

주요한의 상해시절 시와 이중적 글쓰기의 문제*

박 경 수**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상해시절 이중적 글쓰기의 특징과 맥락 |
| II. 주요한의 상해시절 시 텍스트의 확정 | 1. 『독립신문』 소재 시의 특징과 맥락 |
| 1. 상해판 『독립신문』 소재의 시 | 2. 국내 발표 시의 특징과 맥락 |
| 2. 국내 발표 시 | IV.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은 주요한이 상해시절에 쓴 시의 특징과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한이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는 ‘송아지’와 ‘요(耀)’란 필명으로 발표한 시 7편이다. 그동안 주요한의 시로 보아 왔던 ‘목신(牧神)’이나 ‘붉참’ 등으로 발표한 시는 주요한의 시 작품으로 볼 수 없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둘째, 주요한이 상해에서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는 80편 이상이다. 그가 상해 호강대학에 입학한 이후 2년간은 작품 발표를 크게 줄였지만, 3학년 이후부터는 다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했다.

셋째, 주요한이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매체의 성격에 맞추어 쓴 ‘상황시’로 정치적 담론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 시는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구현하고 있지만, 웅변조의 설득적인 목소리에 의한 메시지 중심의 시이며, 격정에 의한 관념적인 시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시는 일본 유학시절에 일본어로 쓴 <암흑(暗黒)>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며, 상해시절 이후에는 시 <채석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넷째, 주요한이 상해시절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는 ‘상해체험 시’와 ‘고향생각 시’, 그리고 ‘전통지향 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주요한의 ‘상해체험 시’는 시의 어조와 문체, 묘사적 특징이나 주제적 성향에서 ‘독립신문 시’와 크게 달랐다. ‘상해체험 시’는 상해의 풍경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담담하게 묘사하되, 이국지향의 시선에 따라 시적 대상을 관능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탈정치적인 성향의 시였다. 이러한 묘사시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모색된 것이다.

여섯째, 주요한의 ‘고향생각 시’는 다시 두 범주로 구분하여 논의했다. 한 가지는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유토피아로서의 고향의식을 나타내는 작품들이며, 다른 한 범주는 고향에 대한 향수의식을 조국애나 민족의식과 결부시키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상해시절 이후 시조나 민요시의 ‘전통지향 시’와 만나게 된다.

주제어 : 주요한, 현대시, 『독립신문』, 『독립신문』 소재 시, 상황시, 상해 체험 시, 고향생각 시, 전통지향 시, 이중적 글쓰기.

I. 들머리

주요한은 김억, 황석우 등과 함께 한국 시를 근대적인 단계로 전환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중반 이후 그동안의 시작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이른바 ‘조선혼’을 담지한 민족 시가로서의 민요시를 창작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던 시인이다. 따라서 주요한의 시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근대시의 개척과 전환을 위한 시작품들과 시론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 글은 근대 초창기 이후 주요한의 시에 마땅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가 일본 유학시절을 거쳐 중국 상해로 건너간 후 펼쳤던 시 창작 활동이 이중적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여러 논자들이 주요한의 상해시절(1919. 5-1925. 5) 시를 논의하되,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들 시가 갖는 면모와 특성들을 밝히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연구 목적과 방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상해판 『독립신문』의 시를 논의하되, 그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유학시절부터 이어진 시작 경향의 맥락을 파악하는 한편, 상해시절 『독립신문』이 아닌 국내 문학 관련 잡지 등 다른 매체에 발표된 시 작품들에서 보이는 글쓰기, 즉 시 쓰기의 또 다른 방식과 맥락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한이 상해시절에 쓴 시 작품들 중 『독립신문』에 발표된 시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자들이 의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한 주요한의 시가 그의 초기 시 작품들과는 달리 민족의식을 강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¹⁾ 이와는 달리 그의 초기

1) 임형택이 처음으로 상해판 『독립신문』의 시를 해제하면서 ‘송아지’의 시를 언급한 바 있으나, 당시 ‘송아지’가 주요한의 필명임을 밝히지 못했다. 임형택, 『항일 민족시, 상해 독립신문 소개』, 『대동문화연구』 제14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1. 6), 155-221쪽. 이어서 김윤식은 『독립신문』에 발표된 ‘송아지’, ‘요(耀)’란 필명으로 발표된 시 작품들 외에 ‘목신(牧神)’으로 발표된 작품들도 주요

시에서부터 추구되어 온 시적 근대성을 민족의식과 결합시키면서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²⁾ 그리고 주요한이 민중시론 등을 통해 보여준 민중적 인식과 연계된다는 점³⁾ 등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들 논의들은 연구의 시각과 목적은 달라도 상해판 『독립신문』 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되었다는 주요한의 시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통한 텍스트 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짧은 기간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그의 시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시 작품들 중에서 주요한의 시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가려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이들 시 작품들이 갖는 성격을 그의 시가 전개된 전체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여기서 특히 주요한이 같은 시기 국내에 발표한 시 작품들과 상해시절 전후에 발표한 시 작품들과의 상호 연관성 내지 변별성을 좀 더 엄정하게 판별해야 할 것이다. 주요한의 상해시절 시는 이런 텍스트의 확정과 전후 맥락의 검토, 그리고 ‘상해’라는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에야 그동안 그의 문학 공적을 높이거나 확대해 왔던 것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인 담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의 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주요한의 시를 도산 안창호의 점진적 민족주의 사상인 준비론과 연관시켜 파악했다. 김윤식, 『준비론 사상과 근대시가 -주요한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4), 81-109쪽. 이 글은 먼저 『주요한 재론 -〈채석장〉에 이르는 길』으로 『심상』(1981. 12)에 발표된 바 있다.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에 관한 많은 논의는 김윤식의 입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조두섭, 『주요한 상해 독립신문 시의 문학사적 위상』, 『인문과학연구』 제11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예술통화연구소, 1993, 1-20쪽. 조두섭은 『주요한 상해 시의 근대성』, 『우리말글』 제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267-286쪽에서 앞의 글을 발전시켜 논의했다.
- 3) 박운우, 『상해시절 주요한의 시와 민중시론』, 『한중인문학』 제25집, 한중인문학회, 2008, 203-221쪽.

주요한의 초기 시에는 이중적 글쓰기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국어로도 시를 쓰고, 일어로도 시를 써서 국내와 일본 문단 양쪽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일본 유학시절 국어와 일어의 이중어에 의한 이중적 글쓰기는 표기 수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변별되기보다 상호 견인되는 공존적 글쓰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상해시절 시의 글쓰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국내에 송고되어 발표한 시 작품들은 어조, 문체, 주제 등에서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 작품들과 상당히 변별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주요한이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 작품들을 다시 확정하고, 다음으로 상해시절의 이중적 글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형식, 문체, 주제 등에서 그 변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후, 이중적 글쓰기에 의한 시 작품들이 주요한 시의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맥락을 형성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주요한의 상해시절 시 텍스트의 확정

1.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

주요한은 1912년 12세 때 제일 유학생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 동경으로 가서, 1년 후인 1913년에 명치학원(明治學院)에 입학하여 5년 과정의 중학시절을 보낸 후, 1918년 동경 제일고교 불법과(佛法科)에 입학하여 재학중 1919년 5월 상해로 건너가게 된다.⁴⁾ 이때는 상해에서 『독

4) 김윤식은 주요한이 동경 제일고등학교 학적부에서 1919년 10월 25일자로 수업료 미납으로 제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당시 제적 일을 기준으로 주요한이 1919년 한 학기를 마치고 동경으로 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김윤식, 앞의 글(『준비론 사상과 근대시가 -주요한의 경우』), 97쪽. 그런데 주요한은 3.1운동 이후 동경 제일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동년 5월에 상해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적 날짜가 그해 2학기인 것은 제적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립신문』이 발행되기 전이었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던 때는 1919년 8월 21일이다. 당시 신문의 제호는 『독립』이었으나, 10월 25일(제22호)부터 『독립신문』으로 바뀌었다.⁵⁾ 주요한은 『독립신문』의 창간 당시부터 출판부장 겸 편집기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⁶⁾ 그런데 주요한은 『독립신문』의 편집과 발행에 관여했던 시기는 언제까지였을까?

주요한은 1920년 9월 현 상하이공대학의 전신인 호강대학(滬江大學)[후장대학]⁷⁾ 부설 중학교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받은 후, 1921년 9월 동대학 공업화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된다.⁸⁾ 그가 호강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때는 1925년 5월이다. 『독립신문』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1928년까지 9년 동안 발행되었다. 그런데 주요한이 『독립신문』에 관여했던 시기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은 “익년(*필자 주 -1920년) 9월에 호강대학에 입학하면서 겨우 인쇄흑의 흔적을 써서 버렸다.”⁹⁾고 회고한 바가 있다. 이를 참고하면

5)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0, 345쪽.

6) 이광수는 처음 조동호와 『독립신문』을 시작했다가 그가 그만두자 주요한이 참여했다고 회고했다.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 삼중당, 1962, 261쪽. 그렇지만 주요한은 상해로 가서 잠시 룬펜 생활을 하다 등사판 신문인 『우리소식』의 기자로 임명되어 도산 안창호의 연설문을 듣고 이를 필기하여 게재한 바 있고, 조동우 군과 함께 신문 『독립』의 창간을 위한 원고 작성, 문선, 식자, 조판, 인쇄 일을 모두 마치니 그때가 1919년 8월 27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주요한, 『기자생활의 추억』, 『신동아』 제31호(1934. 5), 124쪽. 이 글에서 『독립』의 창간일을 8월 21일보다 6일 늦은 8월 27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활자의 문선 과정에서 21일을 27일로 잘못 보아 오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

7) 호강대학은 1904년 설립된 대학으로, 1994년 화동공업대학(花東工業大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 7월에 현재의 상하이공대학(上海理工大學)으로 다시 개명되었다. 현 상하이공대학 홈페이지 참조.

8) 양동국, 『동경과 상해 시절 주요한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 『문학사상』 제330호(2000. 4), 255쪽에서 주요한이 1920년 9월에 호강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호강대학 부설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입학했던 시기를 대학 입학 시기로 착각한 것이거나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기술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임을 밝혔다.

그가 『독립신문』의 편집과 발행에 관여했던 시기는 1920년 호강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이전까지로 보인다. 이 시기에 주요한은 이광수가 지어준 ‘송아지’란 필명을 쓰며 시와 산문을 다수 『독립신문』에 발표했다. 그러다 호강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집과 인쇄 일에서는 손을 떼고 1922년 6월까지 ‘송(頌)’ 또는 ‘송아(頌兒)’¹⁰⁾란 필명으로 이따금 산문을 주로 써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¹¹⁾ 이들 산문도 ‘국치기념감상(國恥紀念感想)’(제111호, 1921. 10. 5)과 ‘유호청년대회(留滬靑年大會) 비판연설회(批判演說會)를 보고’(제132호, 1922. 6)란 글을 제외하고 그가 1921년 9월 호강대학에 정식 입학하기 이전에 모두 발표된 것이다.

그러면 『독립신문』에 발표한 주요한의 시 작품들은 어떤 것들인가. 김윤식은 『독립신문』에 발표된 ‘송아지’, ‘요(耀)’란 필명으로 발표된 시 작품들이 주요한의 시작품들이 분명하다고 하고, 이 외에 ‘목신(牧神)’으로 발표된 작품들도 주요한의 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그의 시를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과 연관시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송아지’ 5편, ‘요(耀)’ 1편, ‘목신(牧神)’ 4편을 합쳐 모두 10편을 주요한의 시 작품 목록에 넣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용호는 위의 필명들 중 ‘목신(牧神)’으로 발표한 시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러서>(제121호, 1922. 3. 1)

9) 주요한, 앞의 글(『기자생활의 추억』), 124쪽.

10) 필명을 한글(한자)로 표기했으나, 본래는 한자로만 표기되었던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본문과 각주에서 동일한 원칙에서 표기된 것임.

11) 주요한이 『독립신문』에 발표한 산문은 다음과 같다. ‘송아지’란 필명으로 ‘추회(追悔)’(제17호, 1919. 10. 4), ‘부인해방문제에 관하여’(제52호, 1920. 3. 11), ‘적수공권(赤手空拳) - 독립운동 진행 방침 사건’(제82호, 1920. 6. 5-24, 4회 연재), ‘송아(頌兒)’란 필명으로 ‘늑 독립운동(獨立運動)?’(제102호, 1921. 4. 9), ‘국치기념감상(國恥紀念感想)’(제111호, 1921. 10. 5), ‘송(頌)’이란 필명으로 ‘비분강개(悲憤慷慨)’(제103호, 1921. 4), ‘자유(自由)와 사(死)’(제105호, 1921. 5. 7), ‘국민적 자각’(제106호, 1921. 5. 14), ‘국민대표회는 왜 모히나’(제110호, 1921. 8. 15), ‘유호청년대회(留滬靑年大會) 비판연설회(批判演說會)를 보고’(제132호, 1922. 6)의 글이 발표되었다.

가운데 무서명, 무제목으로 발표된 시 1편을 동일 필명의 작품으로 보고, 이외 ‘불참’이란 필명의 작품 1편과 무서명의 작품 8편을 더하여 도합 20편의 작품을 주요한의 시로 보았다.¹²⁾

이상에서 논의된 작품들을 모두 주요한의 시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첫째, ‘송아지’란 필명으로 발표된 시 5편은 <가는 해 오는 해>(제34호, 1920. 1. 1), <즐김 노래>(제49호, 1920. 3. 1), <서름이 잇는 벗의 계>(제75호, 1920. 5. 11), <조국(祖國)>(제81호, 1920. 6. 1), <새해 노래>(제89호, 1921. 1. 1)이다. 이들 5편을 주요한의 시 작품으로 보는 데 대해 이견이 있기 어렵다. 주요한 자신이 “‘송아(頌兒)’라는 것은 언문으로 『송아지』에서 나온 것인데 『송아지』라는 것은 해외 방랑 시에 춘원 선생이 지어준 『아호(雅號)』이었습니다.”¹³⁾란 글을 통해 ‘송아(頌兒)’가 주요한의 필명임이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둘째, ‘요(耀)’란 필명의 시로 <대한(大韓)의 누이야 아우야>(제49호, 1920. 3. 1)와 동일 호수의 다른 지면에 대한적십자회 구호와 관련하여 쓴 1편(제49호, 1920. 3. 1)¹⁴⁾으로 모두 2편이 있다. 김윤식이 이미 지적했듯이, ‘요(耀)’란 필명이 주요한의 성명 가운데 글자라는 점, 시적 묘사의 능력에서 ‘송아지’의 시 작품들에 견주어진다는 점에서 주요한의 시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전자의 <대한(大韓)의 누이야 아우야>가 이광수 저, 『독립신문논설집』의 광고(제83호, 1920. 6. 10)에서 책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동순은 “이 글은 어찌 보면 춘원의 글 같기도 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광고의 책이 이광수의 편집에 의한 것으로 보아 주요한의 시로 보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¹⁵⁾

12) 이용호, 『주요한연구』, 동광문화사, 2002, 96-109쪽.

13) 주요한, 『나의 아호(雅號), 나의 이명(異名)』, 『동아일보』(1934. 3. 19).

14) 이 시는 작품 끝에 필명을 요(耀)로 붙여 놓았으나, 『독립신문』(영인본, 학교방, 1986)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제목을 판독하기 어렵다.

15) 이동순, 『상해판 『독립신문』 수록 시작품의 분석』,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155쪽.

이에 대해 권유성이 이광수가 ‘요(耀)’란 필명을 사용한 적이 없고, 광고의 책에 실린 글들 중에서 주요한의 글로 분명히 확인되는 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의 책이 이광수가 자신의 글과 다른 이들이 쓴 글들을 모아 편집한 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요(耀)’의 필명 시가 주요한의 작품임을 검증했다.¹⁶⁾

셋째, ‘목신(牧神)’으로 발표된 시가 4편, 같은 필명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시가 1편이 있다.¹⁷⁾ 이들 시는 1922년 3월부터 1923년 1월 사이에 발표된 작품들인데, 김윤식은 시 <내가 죽었서? 용화(龍華)에 꽃구경하고>(제123호, 1922. 4. 15)의 끝에 ‘4월 1일(四月一日) 유호학생회(留滬學生會) 픽닉 썰’을 빌미로 주요한이 호강대학 2학년 때 썼던 작품으로 보고, ‘송아지’의 시와 형태면에서 유사하고 질적 수준도 비슷하다고 하여 주요한의 작품일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¹⁸⁾ 그러나 이에 대해 권유성은 ‘목신(牧神)’의 시가 ‘송아지’의 시에 비해 그 시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논설적 성격의 문체, 첩표의 무분별한 사용, 관념적인 언어의 과다 사용 등을 보여줌으로써 안정된 리듬의 완결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송아지’ 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하면서, 주요한의 시 작품일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¹⁹⁾ 필자 역시 ‘목신(牧神)’의 시를 주요한의 시로 볼 수 없다는 권유성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리고 ‘목신(牧神)’의 시가 발표될 당시 주요한은 『독립신문』의 편집 일에서 떠나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필명을 사용하며 시를 발표할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

16) 권유성, 『상해 『독립신문』 소재 주요한 시에 대한 서지적 고찰』, 『문학과 언어』 제29집, 문학과언어학회, 2007, 143-146쪽.

17) ‘목신(牧神)’으로 발표된 시로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러서>(제121호, 1922. 3. 1), <내가 죽었서? 용화(龍華)에 꽃구경하고>(제123호, 1922. 4. 15), <새해 아침>(제150호, 1923. 1. 1), <평안히 주무소서>(제154호, 1923. 1. 23) 등 4편이 있다. 그리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러서>의 시 중간에 무제목, 무서명으로 된 시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 작품을 같은 필명의 작품으로 보면 모두 5편이다.

18) 김윤식, 앞의 글(『준비론 사상과 근대시가 -주요한의 경우』), 98-100쪽.

19) 권유성, 앞의 글, 146-154쪽.

넷째, ‘붉참’으로 발표한 시로 <내 너를 위하여>(제160호, 1923. 5. 2) 1편이 있다. 이용호는 ‘붉참’이 한자어 ‘요(耀)’의 뜻과 유사한 점을 들어 주요한의 시로 본 바 있다.²⁰⁾ 그러나 이는 막연한 추정에 의한 것이다. ‘붉참’의 시 1편을 주요한의 시로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권유성이 자세히 논증한 바 있는데,²¹⁾ 필자 역시 권유성의 견해에 동의하며 구체적 논증은 그의 논의에 미룬다.

다섯째, 무서명으로 발표된 <웬일이야>(『독립신문』 제135호, 1922. 8. 1) 등 8편을 이용호는 주요한의 시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서명의 시를 주요한의 시로 본 데에는 시적 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요한의 시로 추정한 것일 뿐 어떤 근거도 없다. 막연한 추정만으로 주요한의 시로 확정할 수 없는 노릇이며, 이들 시 작품들이 모두 주요한이 『독립신문』의 제작에 손을 댄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주요한의 시로 추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독립신문』에 발표된 시작품들 중에서 주요한의 시라고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은 ‘송아지’의 5편과 ‘요(耀)’의 2편으로 모두 7편뿐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 작품 목록

| 순서 | 필명 | 제목 | 게재 호수 | 발표년월일 | 비고 |
|----|------|-----------------|-------|-------------|--------|
| 1 | 송아지 | 가는 해 오는 해 | 제34호 | 1920. 1. 1 | |
| 2 | 송아지 | 즐김 노래 | 제49호 | 1920. 3. 1 | |
| 3 | 요(耀) | 대한(大韓)의 누이야 아우야 | 제49호 | 1920. 3. 1 | |
| 4 | 요(耀) | *미상 | 제49호 | 1920. 3. 1 | *제목 미상 |
| 5 | 송아지 | 서름이 있는 벗의계 | 제75호 | 1920. 5. 11 | |
| 6 | 송아지 | 조국(祖國) | 제81호 | 1920. 6. 1 | |
| 7 | 송아지 | 새해 노래 | 제89호 | 1921. 1. 1 | |

20) 이용호, 앞의 책, 99쪽.

21) 권유성, 앞의 글, 140-143쪽.

이상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 작품은 사실 매우 적은 편이다. 후술하겠지만, 상해시절 주요한이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 작품들이 80편이 넘는 점과 비교하면, 『독립신문』에 시를 발표하는 일에는 상대적이지만 매우 소홀했고, 그만큼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그가 1920년 9월 호강대학 부설 중학교에 어학연수생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독립신문』의 편집과 인쇄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찾아진다. 『독립신문』의 발행 일이 매우 힘들었던 사정은 그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정에 더구나 신문 발행 일을 함께 했던 이광수가 신문 발행의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안창호의 만류도 뿌리치고 결국 1921년 4월 19일로 귀국하는 상황을 맞았다.²²⁾ 주요한은 1920년 9월부터 1년간의 중국어 어학연수, 자신을 후원했던 이광수의 귀국, 그리고 1921년 9월 호강대학 공업화학과 입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립신문』에 몇 편의 산문²³⁾과 시 <새해 노래> 1편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 실상 시 <새해 노래> 1편도 원고 청탁에 의한 작품으로 본다면, 1921년 이후에는 자진하여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 작품은 없는 셈이다.

주요한은 호강대학에 입학한 이후 1~2년 동안 학교생활에 열중하고 시 창작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양동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한은 호강대학 공업화학과에 입학한 후에 학과 대표 일을 맡기도 하고, 학과의 학업 이외에도 체육활동, 교지 편집 일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²⁴⁾ 이와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주요한이 『독립신

22) 정진석, 앞의 책, p.357.

23) 각주 11) 참고.

24) 양동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 1학년과 3학년 때 화학과 대표로 뽑혀 활동하면서 화학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2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 때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는 한편 3학년 때부터는 야구부 주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여기서 3학년 때부터 대학 교지인 『THE SHANGHAI』의 편집인 겸 총무 일을 맡기도 했다. 양동국, 앞의 글, 257-258쪽. 주요한의 활발한 대학생활을 참고할 때, 국어로 이루어지는 문필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에 발표한 시 작품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상해시절 주요한이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 작품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주요한이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 작품의 수는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물론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 작품은 1921년부터 크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1920년 한 해 동안 출판물의 사전 허가와 언론 검열이 이루어지는 국내 문단에 30편이 넘는 작품을 송고하여 발표했다. 그런데 언론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독립신문』에서는 시 작품의 발표가 매우 부진했던 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국내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

1924년에 발행된 주요한의 첫 시집 『아름다운 새벽』(조선문단사, 1924. 12)에는 66편의 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66편에는 모두 작품의 창작 시기가 밝혀져 있는데, 창작 시기를 연도별로 구분한 작품 편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 발표된 시의 창작 시기별 작품 수

| 창작 시기 | 1917 | 1918 | 1919 | 1920 | 1921 | 1922 | 1923 | 총계 |
|---------|------|------|------|-------------------|------|------|------|----|
| 작품 수(편) | 2 | 9 | 6 | 33 ²⁵⁾ | 1 | 3 | 12 | 66 |

주요한이 상해에 체류했던 시기가 1919년 5월부터 1925년 5월까지였

25) 시 <외로움>의 창작 시기가 시집에서는 1922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작품이 『창조』 제6호(1920. 5)에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1922년의 창작 시기 표기는 오류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1920년 2월을 인쇄 시에 오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시 <외로움>은 일단 『창조』 제6호에 시가 발표된 시기를 기준으로 1920년에 쓴 작품으로 잡았음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 1922년에 쓴 작품의 숫자도 시집 상에서 4편이지만 3편으로 정정하여 표시했다.

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상에서 1919년부터 1923년까지 쓴 55편이 상해 시절에 쓴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919년에 쓴 6편은 모두 1919년 5월 이전에 쓴 작품들로 확인된다. <선물>, <하아한 안개>, <새벽 꿈>은 1919년 1월, <불노리>는 1919년 1월 3일에 쓴 것으로 작품 끝에 부기하고 있으며,²⁶⁾ <해의 시절>과 <아침 처녀>는 단순히 1919년에 쓴 작품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창조』 제2호(1919. 3)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따라서 1919년에 쓴 시 6편은 모두 일본 유학시절에 쓴 작품들이며, 상해시절에 쓴 작품들은 1920년부터 1923년까지의 기간에 썼다는 49편으로 좁혀진다.

그러면 이들 49편의 시 작품들은 모두 상해시절에 쓴 작품일까?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높다. 주요한이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상해시절을 회고하는 글에서 유학생할 도중 귀국했다는 언급이 없기도 하거니와, 어학연수 기간과 대학생활의 초창기에 그곳의 생활에 적응하기도 무척 바빴을 것이란 점과 상해와 평양을 오고가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그의 중도 귀국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가 상급 학년이 되면서 1924년 7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시 귀국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²⁷⁾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 수록된 시 작품들 중에서 상해시절에 쓴 작품들로 분명히 확인되는 작품들이 있고, 여러 정황상 상해시절 시 작품들로 추정되는 작품들도 상당수 된다. 전자의 작품들로 시집 중에서 ‘상해 풍경’으로 별도 편성된 장에 수록된 <상해(上海) 소녀>, <가극(歌劇)>, <블란서 공원> 3편²⁸⁾은 모두 1920년 2월에 쓴 것으로 확인된다.

26) <선물> 등 3편은 <불노리>와 함께 『창조』 창간호(1919. 2)에 발표되었다.

27) 주요한은 ‘송아지’란 필명으로 『문예시평』(『조선문단』 창간호, 1924. 10)의 끝에서 “서울 가는 기차가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루하게 기다리노라기에 그늘에 안저서도 서늘치 아니하다.”고 했는데, 글의 끝에 “1924. 7. 24. 평양서”라고 글을 쓴 날짜와 장소가 표기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주요한이 상해 호강대학 3학년을 마치고 방학기간에 일시 귀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 이들 3편은 『창조』 제4호(1920. 2)에 ‘상해(上海) 이야기’란 제목 아래 발표한 <가

그리고 ‘고향 생각’ 편에 묶여 있는 <그 봄을 바라> 등 11편²⁹⁾은 타국에서 느끼는 향수의식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시절에 쓴 작품들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시집에서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쓴 40편의 작품들은 대부분 국내로 송고되어 발표된 작품들로 확인되는데, 모두 상해시절에 쓴 작품들이 아닌가 한다. 다음 글을 보자.

학교(*필자 주-호강대학 부설 중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다시 시를 썼다. 그것들은 당시 김환(金煥)이 계간(繼刊)하던 『창조(創造)』와 『영대(靈臺)』, 『뢰레산쓰』, 『조선문단(朝鮮文壇)』 등에 게재되고 뒤에 『아름다운 새벽』에 수집된 작품들이다.³⁰⁾

주요한은 일본에 있으면서 『창조』 창간호(1919. 2)부터 제2호(1919. 3)까지의 편집과 발행 일에는 적극 관여했으나, 이후 이 잡지의 편집과 발행 일을 김환(金煥) 등 다른 동인들에게 맡기고 1919년 5월에 중국 상해로 건너왔다. 위에서 주요한이 “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다시 시를 썼다.”고 했으나, 상해로 와서 정착하는 기간인 1919년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에 그가 실제로 쓴 시 작품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가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편집과 발행 일에 여념이 없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시가 다시 지면에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20년 초부터이다. 상해판 『독립신문』에도 시를 발표하고, 국내로 시를 송고하여 『창조』 등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그의 말처럼 호강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어학연수(1920. 9-1921. 8)를 받으면서부터 다시 시를 쓴 것은 아니지만, 1920년 이후부터 귀국 전인 1925년 5월 이전에 발표된 시 작품들

극(歌劇)>, <지나소녀(支那少女)>, <공원(公園)에서>로 먼저 발표된 바 있으며, 『조선문단』 제4호(1925. 1)에 발표된 <상해풍경(上海風景)>은 상기 <공원(公園)에서>가 재발표된 것이다.

29) 이들 중 8편은 『창조』 제8호(1921. 1), 1편은 『폐허이후』 제1호(1923. 3)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30) 주요한, 앞의 글(『기자생활의 추억』), 236쪽.

은 모두 상해에서 쓴 시 작품들이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 게재된 작품들 중 1920년 이후에 쓴 것으로 기록된 49편의 작품 대부분은 『창조』를 비롯하여 『영대』, 『폐허이후』, 『개벽』 등에 발표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해시절에 쓴 시는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 수록된 작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광수, 김동환과 함께 낸 『삼인시가집』(삼천리사, 1929)에 수록된 <남국의 눈>, <지금도 못 잊는 것은>, <등대>(이상 『조선문단』 제6호, 1925. 3), <영혼>(『조선문단』 제7호, 1925. 4) 등도 상해시절에 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국의 눈>은 상해에 때 아닌 눈이 온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해시절 쓴 시임이 분명하다.³¹⁾

시집 『봉사꽃』(세계서원, 1930)에 수록된 상당수의 시조와 ‘소곡’³²⁾ 작품들도 상해시절에 쓴 작품으로 확인된다. 이 시집에 수록된 <망향>, <산보>, <벗>, <습작>이란 제목의 연작 시조 대부분이 『동광』 제1호(1926. 5)에 <발자취>란 제목 아래 발표되었는데, 작품 중간 중간 ‘1920년 7월 습작’, ‘구작’, ‘22년 춘하’ 등으로 모두 상해시절에 쓴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시조 작품들뿐만 아니라 ‘소곡’으로 분류되어 『실험실에서』란 제목 아래 발표된 <자라나는 것>, <폐놀탈렌>, <요도-연의 침던>, <금속의 노래>도 이미 『영대』 제2호(1924. 9)에 발표된 것으로, 그가 호강대학 공업화학과에 재학중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하며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쓴 시임이 분명하다. 이밖에 이 시집에 수록된 <아침 황포강에서>란 시도 그 제목만으로도 상해시절에 쓴 작품임이 드러난다.

31) 『삼인시가집』(삼천리사, 1929)에 수록된 <가신 누님>, <북그러움>, <꽃밭>(이상 『조선문단』 창간호, 1924. 10)과 <황혼의 노래>, <아가의 꿈>(이상 『영대』 제3호, 1924. 10)은 1924년 주요한이 일시 귀국하여 쓴 작품일 개연성이 있어 상해시절 작품에서 제외했다.

32) 시집 『봉사꽃』에서 2부에 편성된 작품으로 46번 <논길>부터 66번 <아모도>가 주요한이 시집의 『여언(餘言)』에서 말한 ‘소곡(小曲)’에 해당된다. 주요한은 이 시집의 끝 부분 『여언』에서 “『아름다운 시집』 이후의 작품 중에서 시조 급 소곡(時調及小曲)만을 모은 것”이라 했다.

시집에 수록되지도 않고 상해시절 이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동광』 제2호(1926. 6)에 ‘구고에서’라고 발표한 <겨울밤에> 외 2편도 상해 체류 중에 쓴 작품들이다. 시 <겨울밤에>는 1923년 1월, <새 생활>은 1920년 9월 10일에 쓴 것으로 각각 밝히고 있는데, 특히 <새 생활>은 ‘○○학교에 입학하면서’라고 부기한 것과 그가 실제 호강대학 부설 중학교에 입학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들 시 작품들과 함께 발표된 <팔월 이십일일>은 ‘○○신문 창간 한돌’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는 바로 『독립신문』 창간 1주년인 1920년 8월 21일을 기념해서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요한은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 수록된 49편의 시 작품들 외에 30여 편의 시 작품들을 포함하여 80편을 상회하는 시 작품들을 상해시절에 써서 그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고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요한이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했던 시 작품들의 수는 1921년 9월 이후 한동안 현저하게 줄어든다.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 소재한 시만 본다면, 1921년에 쓴 작품이 고작 1편, 1922년에 쓴 작품이 3편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한이 호강대학에 입학한 후 1-2학년 동안에는 대학생살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시를 쓸 겨를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과 대표 일과 체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다소 안정을 찾았는지 작품 발표가 다시 늘어난다.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서 1923년에 쓴 시 작품이 12편으로 늘어난 점이 이를 말해주며, 다른 시집에 수록된 상해시절 작품들도 대체로 1923년 이후에 썼거나 발표한 작품들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아름다운 새벽』에서 무려 33편을 1920년 한 해 동안 발표했던 때만큼 주요한이 시 창작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그의 시 창작은 1925년 5월 귀국한 이후 본격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상해시절 이중적 글쓰기의 특징과 맥락

1. 『독립신문』 소재 시의 특징과 맥락

주요한이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 7편은 우선 발표 매체 자체가 상해임시정부 기관지라는 점, 그리고 7편 중 5편이 신년 첫날이거나 3.1독립만세운동 기념일에 발표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른바 ‘상황시’(occasional poetry)³³⁾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³⁴⁾ 그렇다면 이들 시는 대부분 주요한이 대부분 특정한 상황과 경우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창작한 시 작품들로 시인의 내면적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여기에 같은 시기 국내에 송고한 시 작품들의 수에 비해 『독립신문』 소재 시의 발표가 매우 부진했던 사정이 겹쳐진다. 상해판 『독립신문』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이하 ‘독립신문 시’로 약칭한다)는, 여러 논자들이 언급했듯이, 분명 그의 다른 시 작품들과 달리 민족의식을 뚜렷이 형상화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독립신문』 소재 시에서 민족의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시인의 구체적 경험과 내면적 진실성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상황의 변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표명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면 주요한의 시로 분명히 확인되는 <대한의 누이야 아우야>를 보자.

大韓의 누이야 아우야
漢陽城 날 말근 날, 獨立萬歲의 소리가 물결가치 우레가치 우리나라갈

33) J. P. Hunter, The elements of Poetry, *Poetry*(ed. by J. P. Hunter), New York : Norton Company, 1973, 541쪽.

34) 양왕용, 『주요한 시의 변모과정과 상황의식』, 『한국근대시연구』, 삼영사, 1982, 159-161쪽에서 『독립신문』 소재 시를 논의하면서, 이들 시를 ‘경우의 시’로 명명한 바 있다.

때 暴惡殘忍한 倭警의 비린내 나난 칼이 슬적 밧길 적에 놓히 든 太極旗에 피를 뿌리며 떠러지는 너의 可憐한 두 팔을 지금 내가 본다.

水原 花樹里 우거진 풀밭히 無道의 불에 재만 남을 때, 罪 업슨 너의 두 다리가 野蠻한 倭兵의 거츠른 손 미테 찌여짐을 지금 내가 본다.

세 마디 銃소리에 스러진 어린 세 兄弟의 魂이여, 너의 부르짖는 소리가, 또 너의 사랑하던 늙으신 祖父의 痛哭하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울린다. 오직 너를 生命가치 알던 너의 어머니 目前에서, 녹 쓰른 槍 끗헤 찢려 죽은 어린 同生아, 지금 最後의 『어머니』를 찾난 너의 絶叫가 너의 어머니의 마즈막 祈禱와 함끼 나의 가슴을 끄린다.

아아 …… 아아 大韓의 누이야 아우야!

復活의 새소리가 우렁차게 大韓나라 坊坊谷谷이 퍼져나갈 때, 그 偉大한 鳴動 속에 가장 힘있게 가장 맑게 울니던 너의 목소리가 只今 나의 가슴을 흔든다.

自由를 爲하야 뿌린 너의 피, 말근 中에도 말근 피, 어리고 어린 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애츠러운 純潔의 피.

自由를 위하야 우는 우름, 말근 中에도 말근 우름, 어리고 어린 우름, 自由를 爲하야 버린 生命, 生 각할수록, 불수록 앓갑고도 애츠러운 純全한 그 生命.

아아 대한의 어린 누이야 아우야!

- 耀, <大韓의 누이야 아우야>(제49호, 1920. 3. 1) > 1연

위의 시는 1919년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쓴 작품이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주요한은 일본에서 중학을 졸업하고 동경제일고교에 입학할 당시 김동인과 함께 동인지 『창조』 창간호(1919. 2)를 발행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제2호를 준비하는 중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일본제일고교에서의 유학을 포기하고 상해행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³⁵⁾ 여기에는 먼저 상해로 간 이광수의 영향도 자못 컸으리라고 본다. 여하튼 주요한은 3.1운동 이후의 국내 상황

35) 주요한이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귀국했음이 “기미만세 소리에 일고를 뛰쳐나와 가지고 조선으로 나왔더니”라는 글에서 파악된다. 주요한, 앞의 글(기자생활의 추억), 123쪽.

을 직접 목도한 후 상해로 가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고자 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시 <대한의 누이야 아우야>는 비록 ‘상황시’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상의 정황을 고려하면, 3.1운동으로 촉발된 민족적 항쟁과 이를 탄압하는 일제의 만행, 그리고 그에 따른 민족적 비극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만큼 이 시의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시적 자아의 격정(pathos)이 열거와 반복적 구문을 타고 흐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경험적 구체성과 감성적 흥분이 혼재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전자의 구체성이 이 시적 배경이기도 한 수원 화수리 항쟁과 그 비극적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나고, 후자의 감성적 흥분은 시적 청자로 특별히 호명되는 ‘어린 누이와 아우’의 비극적 희생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어린 누이와 아우’는 피학적 대상인 민족에 대한 제유(Synecdoche)로 일제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로서 받는 희생의 의미를 강화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그 가학적 주체의 폭력성을 한층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단순히 3.1운동의 의미를 관념적 차원에서만 새기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렇다면, 상황시가 아닌 시 작품들에서는 주요한의 역사의식 내지 현실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송아지’란 필명으로 발표된 <조국>이란 시 작품이다.

偉大할사, 나의 祖國아, 나의 어린 時節의 追憶이 지금 나의 단꿈을 네게로 잇글어 간다. 마음을 녹이는 溫帶의 봄바람에 안기어 복송아나 무 그늘에서 그 偉大한 歷史를 넘고 눈물 지던 그때 -그 눈물의 즐거움…… 그갓흔 낙이 지금은 다시 맛볼 수 업게 되엿다. 너는 나와 너며 갖 가히 잇서서 尋常하여졌다.

그러나 偉大할사, 나의 祖國아, 患難과 傷心의 날에 네 일음이 나의 慰勞가 되며 勇氣가 된다.

네가 나흔 모든 英雄, 大同, 鴨綠의 물가에 네의 武勇을 빗내던 將수들, 鷄林 수풀에 金海 물가에 建國의 神話를 비저넨 너의 그림자. 또 네

가 길너낸 邦國, 民衆 -어는 때 나는 배달 夫餘의 光彩 가득한 史記를
보고 가슴이 興奮으로 떨림을 깨다렸다. 모든 날근 꿈들이 祖國이란 일
음 아래 새 生命을 가지고 내 피를 끌케 하였다.

偉大할사, 나의 祖國아, 나의 祖國아, 아름다운 鮮血에 花裝된 祖國아.

- 송아지, <祖國>(제81호, 1920. 6. 1)에서

“위대할사, 나의 조국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시는 겉으로 보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관념적인 시로 보인다. “온대의 봄바람에 안기어 북송아나무 그늘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넓고 눈물지던 그때 -그 눈물의 즐거움”이란 구절에서는 시적 자아의 감상적이면서 다소 과장된 조국애를 읽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상성과 과장된 흥분은 영웅, 건국신화, ‘배달 부여’ 등 민족사의 약호들과 구체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어느 정도 약화되지만, 열거와 반복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흥분된 어조는 여전히 『독립신문』이란 매체적 특성에 간혀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³⁶⁾ 다음 <서름이 잇는 벗의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벗이여/哀痛의 눈물을 거두기 전에/그대 눈물의 뜻을 깨달으라/벗이여
그대가 아느냐/그대 한 사람의 慟哭하는 울음이/온 大韓 사람의 목을
메는 울음임을/그대 가슴을 쓰리게 하는 설음이/그대와 피가 같은 모든
무리의 사무친 설음임을/또 그대가 咀呪하는 社會와 世上이/불쌍한 그
대 民族이 다 같이 咀呪하는 世上임을/아아 벗이여/哀痛의 눈물을 거두
기 전에 먼저/그대 눈물의 뜻을 깨달으라/사랑하는 벗이여 그대야말로/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 民族을 위하여/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痛哭할
지어다/그리고 倍加하는 勇氣와 決心으로/ 그 뜨거운 눈물을 가다듬을
지어다

- 송아지, <서름이 잇는 벗의계>(제75호, 1920. 5. 11) 전문

36) 이 점을 조두섭은 주요한의 『독립신문』 소재 시가 상해 임시정부 담론과 동일화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두섭, 앞의 글(『주요한 상해 시의 근대성』), 271쪽.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적 자아의 감정을 시적 대상에 이입함으로써 서로간에 감정적 일체감 내지 동일성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은 『독립신문』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며, 그의 시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근거로 거론된다. 그런데 이 시에서 “벗이여”란 반복적 호명은 의도한 대로 감정적 동일성을 이루거나 민족공동체 의식을 적절히 나타내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벗이여”가 곧 3인칭 대명사 “그대”로 바뀌면서 시적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적 자아의 “그대”에 대한 발언은 “깨달으라”, “아느냐”, “통곡할지어다” 등과 같이 명령형이나 의문형의 종결어로 다소 위압적인 어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그대가 저주하는 사회와 세상이/불쌍한 그대 민족이 다 같이 저주하는 세상임을”이라고 호소하더라도, “그대”나 “그대 민족”은 시적 자아와 분리된 입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고, 시적 자아로부터 다분히 설교조 내지 훈계조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으로만 위치하게 된다.³⁷⁾ 위의 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적 자아와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설교와 훈계를 하는 윤리적 성숙자와 이를 일방적으로 듣는 윤리적 미성숙자로 분리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시가 관념적 성격을 보여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요한의 ‘독립신문 시’는 때로 ‘상황시’로서 감정적 흥분이 내재된 목소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경험적 구체성을 기반으로 관념적 진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상황시’가 아닌 작품에서 오히려 시적 자아가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감상성에 빠지는가 하면 시적 자아와 시적 대상과의 분리 인식으로부터 오는 설득적이고

37) 조두섭은 이런 점에서 이 시가 “시적 청자에게 민족 현실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는 응변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적절한 지적이다. 조두섭, 앞의 글(『주요한 상해 시의 근대성』, 274쪽).

교조적인 목소리가 시의 관념적 성격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주요한의 ‘독립신문 시’는 분명 그 매체적 성격에 맞추어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구현하고자 한 작품들이지만, 그것들이 경험적 구체성을 기반으로 한 시적 형상화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들 ‘독립신문 시’는 상해시절 이전과 이후의 시들과 어떤 맥락을 형성하는가?

우선 이들 시는 시의 리듬과 형태, 그리고 어조 면에서 자유시 내지 산문시의 내재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적 자아의 격정적 감정이 토로되거나 다소 흥분된 시적 자아의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동경 유학시절에 일어로 쓴 <미광(微光)> (『현대시가(現代詩歌)』 제9호, 1918. 10)이 가장 앞에 놓이고, 국어시 <눈>(『학우』 창간호, 1919. 1)과 <불놀이>(『창조』 창간호, 1919. 2)가 이어지는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시적 자아의 의식적 지향에서 ‘독립신문 시’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것은 <미광>에서 <불놀이>로 이어지는 작품들에서 시적 자아의 음울한 내면이 외면적 풍경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쪽이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인 의식을 토로하는데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의 초기 시가 낭만적 동경과 상상의 형식으로 상실감의 회복과 미래에의 전망을 보여준다³⁸⁾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상해시절 이전에 쓴 주요한의 시 작품들 중에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일어서 <암흑(暗黒)>(『現代詩歌』 제10호, 1918. 11)이다. 물론 그 이전 일어서 <폭풍우 - 낮과 밤의 기도(5)>(『現代詩歌』 제7호, 1918. 8)에서 현실의 폭력적 상황을 폭풍우의 상황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

38) 박윤우, 앞의 글, 214쪽.

이 민족적 상황과 관련되거나 민족공동체 의식과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³⁹⁾ 그런데 일어서 <암흑>에 묘사된 시적 상황은 이와 상당히 다르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운명지워진 계절이다.
 유혈과 비참한 날이 우리들의 호흡을 막아버리는 겨울이다.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오오, 환상은 사라진다. 저주받은 백성! 그런데 더욱……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연푸른 새벽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

- <암흑(暗黒)>에서⁴⁰⁾

이 시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는 겨울을 시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겨울은 축자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유혈과 비참한 날이 우리들의 호흡을 막아버리는”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저주받은 백성”과 “아름다운 새벽,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문맥의 의미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저주받은 백성”이 곧 비참한 식민지 현실에 놓인 우리 민족을 바로 지칭하면서 “출입문이 열리는” 해방의 그날인 “아름다운 새벽”을 염원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주요한이 그의 첫 시집 이름을 특별히 ‘아름다운 새벽’으로 붙인 데에도 이와 같은 현실인식이 작동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일어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시 <암흑>은 반복과 나열의 문체, 그리고 시적 화자의 흥분된 어

39) 주요한의 일어서가 갖는 성격에 관하여 즐고, 『1910년대 주요한의 일어서 연구』, 『외대어문논집』 제15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0. 163-183쪽에서 논의한 바 있다.

40) 『現代詩歌』 제10호(1918. 11), 18쪽. “冬だ! 冬だ! 運命づけられ季だ./流血と酸鼻の日が俺等の呼吸を閉ぢ込める冬だ./俺達は待つて居る、戸口の開かれるのを、)おゝ、幻は消えるのだ、唄はれた民! しかも猶……/(俺達は待つて居る、美しい淡青の曙を)/(俺達は待つて居る、まつて居る、まつて居る……)”.

조, 산문체의 리듬 등이 ‘독립신문 시’들과 상통하는 면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요한이 민족공동체 의식을 어느 정도는 사전에 예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예비된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해시절 『독립신문』 소재 시에서 표가 나게 드러나지만, 그것이 그의 시에서 시적 주체의 굳건한 신념으로 지속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상황적 고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표명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상해시절 이후 이러한 주체적 식민지 현실인식은 시 <채석장>(『조선지광』, 1929. 6)⁴¹⁾에서 다시 분출된다. 시의 일절을 보자.

핑. 핑. 핑. 최후의 일격이다 준비는 다 되었다.
 폭약은 장치 되었다 불을 그어달 사람은 나오라. 위대한 승리에 취할
 사람은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너름날 자연은 모도가 잠잠하게 불 빛는 광경 잠잠한 것은 힘세다 위
 대하다. 오, 잠잠한 합창의 소리
 너는 듯느냐 그 소리를 「최후의 일격이다, 준비는 다 되었다」
 「노래하자 태양아, 나무 숲아, 흐르는 시내야, 올라가자 선구자야, 깨
 트려라 새 길을.
 우리에게 주라. 위대한 힘을. 마글 자 엮는 힘을」
 - <채석장>의 일절

이 시에서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공은 ‘선구자’로 호명된다.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폭약을 넣어 폭발시키는 일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는 일과 동일시되어 있다. 이미 『독립신문』 소재 시에서 읽었던 산문체의 자유로운 리듬과 문체, 반복과 나열, 그리고 웅변조의 설득적 목소리가 이 시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시 <채석장>은 ‘독립신문 시’와 같은 계보 속에 놓인

41) 이 시는 이광수, 김동환과 함께 펴낸 『삼인시가집』(삼천리사, 1929. 6), 102-103쪽에 수록됨.

다. 그런데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일이 민족공동체의 희생과 항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일격”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선구자’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있는 점이 기존 시와 다르다. 물론 여기서 “최후의 일격”이 강경한 폭력투쟁의 노선을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을 주요한이 받아들이면서도 당시의 사회주의 노선과도 접맥되는 강경 노선을 취한 점이 있다고 김윤식이 지적한 바 있다.⁴²⁾ 이런 까닭에 시 <채석장>이 비록 ‘민중시’로 추구된 작품이지만 구호적 차원에 머물러 주요한의 시에서 ‘시적 무덤’과 같이 되었다⁴³⁾고 본 김윤식의 견해 또한 수긍될 수 있다. 식민지 현실이 점차 암담한 상황으로 나아갔던 상황에서 식민지 상황과 암반, ‘석공’과 ‘선구자’로 연결되는 시적 상상력은 그런대로 감싸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언술로만 드러날 때 관념적인 작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설사 시 <채석장>을 통해 주요한의 식민지 현실인식을 남다른 것으로 긍정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고, 이후 주요한이 점차 친일의 문학노선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과 역사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견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2. 국내 발표 시의 특징과 맥락

주요한이 상해시절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그 특징과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갈래는 자유시의 내재율을 바탕으로 상해에서 보고 겪는 일들을 소재로 한 일련의 시 작품들이다. 이들을 편의상 ‘상해체험 시’로 명명하기로 한다. 둘째 갈래는 자유

42) 김윤식은 주요한의 시 <채석장>을 도산 안창호의 국내 조직이기도 한 동우회에 가입하고, 동우회 운동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서도, 동우회의 강경 노선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파악했다. 김윤식, 앞의 글(『준비론 사상과 근대시가 -주요한의 경우-』, 104-107쪽.

43) 김윤식, 앞의 글, 108쪽.

시의 내재율에 입각하거나 때로는 시조나 민요시의 정형률을 지향하되 상해에서 고향이나 고국을 생각하며 쓴 일군의 시 작품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시 작품들이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서 ‘고향생각’ 편에 묶은 점을 고려하여, ‘고향생각 시’로 편의상 명명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마지막 셋째 갈래는 정형률의 리듬을 지향하며 쓴 민요시나 시조로 자연서정을 노래하거나 또는 이른바 ‘조선혼’을 담고자 했던 시 작품들이다. 이들을 ‘전통지향 시’로 편의상 묶을 수 있다. 여기서는 첫째와 둘째 갈래의 시편들을 중심으로 이들 시의 특징과 맥락을 짚어본 후, 그것들이 『독립신문』 시와 변별되는 점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 갈래의 ‘전통지향 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거론하지 않는 까닭은 이들 시 작품들이 『독립신문』의 시 작품들과 변별되는 특성들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 변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⁴⁴⁾

먼저 ‘상해체험 시’에 확실하게 해당하는 작품들로 시집 『아름다운 새벽』에서 ‘상해 풍경’으로 묶인 <상해 소녀> 등 3편, 『삼인시가집』에 수록된 <남국의 눈>, 『봉사꽃』에서 ‘실험실에서’란 큰 제목 아래 들어 있는 <자라나는 것> 외 3편과 <아침 황포강에서> 등을 집울 수 있다. 이들 중 <상해 소녀>와 <블란서 공원>을 보자.

① 소매는 짧아 회고 가느른 팔을 드러내며/연홍색 바지에 치마는 넓지 아녜다./쉴크스탁킹 사이로 희미한 발목의 곡선/눈을 미하는 살빛/가느른 손가락에 감긴 손수건은 무릎 우에!!/ …(중략)… //少女의 오직 한 열정은 방황하는 시선 속에/아, 뜻 깊히 憧憬의 저편으로 던지는 視線 속에 숨었도다.

- <상해(上海) 소녀>에서

② 遺傳的인 적은 발노 뺏둥거리는 中國 「아마」(乳母)나/或은 얼굴애 紛 바른 日本 계집의 손에 끌녀/잔디밭을 발바 문지르는 어린애들의/아

44) 주요한의 전통지향 시인 민요시에 대한 논의는 줄져,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 한국문화사, 1998, 186-192쪽의 논의에 미룬다.

라사, 프랑스, 아메리카 色色의 말을 짓거림도/植民地인 『상하-이』의 氣
 風을 드러내도다. <낮>

검은 幕 친 테니스 코-트에/遊戲하는 男女는 잠잠히 움직이는 그림가
 트며/라켓트 권 팔을 높히 드러 공을 맞는 少女의/自然한 아름다운 姿勢
 는 夕陽에 떠오른 彫刻인가 하도다. <저녁>

- <블란서 공원>에서

주요한이 위의 두 작품을 쓴 때가 1920년 2월이다. 이때는 주요한이 『독립신문』의 편집부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신문』에 시를 발표하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 ‘독립신문 시’와는 너무나 다른 시 세계를 보여준다. ①의 <상해 소녀>에서 소녀를 묘사하고 있는 시선은 감각적이면서 관능적이다. “희고 가느른 팔”, “셀크스탁킹 사이로 희미한 발목의 곡선”, “눈을 미하는 살빛”, “가느른 손가락에 감긴 손수건” 등으로 마치 카메라의 렌즈처럼 가깝고도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된 소녀의 관능적인 모습은 그러면서 시적 자아의 눈길을 매혹적으로 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소녀의 몸에 대한 관능적 시선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적 자아는 소녀의 내면에 숨어 있는 “오직 한 열정”까지 투시하면서 그것이 “뜻 깊이 동경(憧憬)의 저편으로 던지는 시선(視線) 속에 숨었도다”라고 하며, 다분히 이상화된 이국적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상해의 풍경을 이국적 정서와 동경(exoticism)의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이 ②의 <블란서 공원>이다. 이 시에 그려진 ‘프랑스 공원’의 모습은 중국 ‘아마’, 일본 여인과 아이들, 러시아인, 프랑스인, 미국인 등이 함께 섞여 있는 다국적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국적 공간을 “식민지(植民地)인 『상하-이』의 기풍(氣風)”을 드러낸다고 했다. 당시 조선과는 또 다른 식민지 공간인 상해를 주요한은 이처럼 긍정적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당시 주요한이 상해를 보는 눈에는 ‘식민지 상해’ 보다는 ‘상해의 기풍’이 보이는 공간으로, 식민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

나라 오히려 자유로움이 구가되는 이국적이고 다국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해의 낮 풍경에 이어 석양이 비치는 저녁의 상해 풍경 역시 테니스를 즐기는 남녀의 모습을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테니스공을 받는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석양에 떠오른 조각”같다고 할 정도로 매혹적으로 묘사했다.

주요한의 ‘상해체험 시’는, 두 작품에서 보듯이, ‘독립신문 시’ 작품들이 창작되는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지만, 시의 리듬과 형태면에서 자유로운 산문의 리듬에 의한 자유시라는 점만 공유되고, 시의 어조와 문체, 묘사적 특징이나 주제적 성향에서 크게 다르다. 시적 자아는 상해의 풍경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묘사하되, 시적 자아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시적 대상을 담담하게 묘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시적 자아의 감정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시적 대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국지향의 시선이 작동되면서 시적 대상을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적 자아의 흥분된 어조가 웅변조로 토로되거나 설득적 목소리로 나타나는 ‘독립신문 시’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상해체험 시’는 상해 풍경에 대한 개인적 정서와 인상적 감각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때로는 교조적이고 관념적인 언술을 보이는 ‘독립신문 시’와는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이는 ‘상해체험 시’가 정치적인 담론에서 자유로우면서 이색적인 경험에 이끌리는 개인적 정서 지향을 보인 것이라면, ‘독립신문 시’는 기본적으로 상해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갖는 정치적인 담론을 구현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창작되었음을 말한다.

‘상해체험 시’는 외면적 대상의 관찰을 중시하는 이미지 중심의 묘사 시이다. 이와 같은 시적 모색은 사실 일본 유학시절에 이루어졌다. 그가 『현대시가(現代詩歌)』의 동인으로 있으면서 이미지즘에 영향을 받아 쓴 <여인(女)>, <책상 위의 정물(卓上의靜物)>, <시바세이쇼오코(芝清正

公)>, <잠자는 여인(まどろむ女)> 등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서 <여인>과 <시바세이쇼오코(芝清正公)>를 보자.

① 여인이 창밖을 향해 서 있다./눈물에 젖은 야경/화장을 지운 후의 피부—/어깨와 목덜미가 야경을 비춘다./새하얀 곡선!//…(중략)…//여인이 획 뒤돌아 본다…/기름진 풍만함, 이제는 그만!/그 하이얀 콧등에/밤이 쌍극 미소를 짓는다.

- <여인(女)>에서⁴⁵⁾

② 즐거운 것은—/아세틸렌의 향기를 따라/아득히 풍긴다/튤립, 히아신스—//슬픈 것은—/어항의 복적입,/골목에서 새어 나오는 바이올린, 그리고/장난감 장사의 콧노래…⁴⁶⁾

이상에서 보듯이, 외면적 풍경으로부터 받는 인상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의 면모는 동경 유학시절 쓴 시 작품들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①의 <여인>에서 나타난 묘사적 특징은 시 <상해 소녀>의 묘사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적 자아의 시선이 여인의 관능적인 모습을 섬세한 관찰에 의해 초점화하고 있는 점이 특히 그렇다. 시 ②의 <시바세이쇼오코>는 『현대시가』에서 ‘동경 풍경’이란 소제목으로 여러 동인들이 쓴 시를 모은 자리에 있는 주요한의 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시바세이쇼오코(芝清正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유린했던 왜장 카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의 묘임에도, 주요한은 그와 관련된 역사에 대한 어떤 의식도 일체 배제하고, 묘역의 주변 풍경만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45) 『현대시가(現代詩歌)』 제5호(1918. 6), 34쪽. “女が窓の外を向いて立つて居る./涙のやうな夜景/白粉を取つた後の皮膚—/肩と頸が反射する、/眞白な曲線!//…(中略)…//女がふいと振り向く…/脂ぎつた豊かさ、もう澤山!/その白い鼻に/「夜」がひよいと笑ふ.”

46) 『현대시가(現代詩歌)』 제6호(1918. 7), 24쪽. “うれしいものは?/アセチレンの?ひにつれて/ほのかに香る/チウリツプ。ヒヤシンス?。//かなしいものは?/金魚鉢のにぎやかさ、/路次から洩れるバイオリン、さては/オモチャ賣の鼻唄…”

주요한의 '상해체험 시'는 이와 같이 일본 유학시절에 모색되었던 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말하자면 주요한의 탈정치적이면서 개인적인 시적 지향의 한 면모가 이들 시 작품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주요한이 상해에 있으면서 탈정치적인 영역에서 이국적인 취향에 이끌려 마냥 자유롭게 생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향과 고국을 멀리 떠나 이국 상해에 와 있는 주요한으로서는 정치적 임무를 『독립신문』의 편집과 발행을 맡으면서 틈틈이 정치적 담론을 구현하는 시와 산문 기사를 쓰는 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임무나 담론에 대한 부담 없이 '상해체험 시'도 쓰고 다른 한편 고향과 고국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담은 '고향생각 시'도 썼다. '고향생각 시'는 바로 이런 점에서 고향과 고국에 대한 주요한의 내면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들로서 '독립신문 시'와 어떤 변별성을 보여주는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주요한의 이런 '고향생각 시'는 다시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유토피아(utopia)로서의 고향을 추억하거나 향수의식을 자아내는 시 작품들이다. 다른 한 범주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의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조국이나 민족의식과 결부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시 작품들로 『아름다운 새벽』의 '고향 생각'편에 수록된 <우리 집>, <뜰>, <꽃밭>, <포도>, <앵두>, <연꽃>, <집의 나의 요람> 등과 '힘 있는 생명'편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달빛에 피는 꽃'에 수록된 <추석> 등이 해당되며, 후자의 작품들로 역시 같은 '고향 생각'편에 묶인 <그 봄을 바라>, <그 봄의 부름>과 '달빛에 피는 꽃'편에 들어 있는 <내 마음 근심 가득하매>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고향생각 시'의 범주별 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범주별로 한두 작품씩을 들어 살펴보자.

- ① 우리 집 동편 담 밋헤는 돌창을 파고/서편 담은 것집 담벼락으로

대신하였소/그 담에 부터있는 닭이 화를 가리운 듯이/비스듬이 뼈더난
살구나무, 첫 녀름에/막대기로 떨구는 선 살구의 신 맛이/나의 조화하는
것의 하나이었소.

-<우리 집>에서

② 집이어, 나의 요람, 나의 낙원/죽어 리별한 애인의 가슴에/엄마춘
자리가 남아 있는 것가티/네 익기 무든 지붕으로 문혀진 구팡까지/나의
어릴 때 발자국이 색여 있다.

-<집이어, 나의 요람>에서

위의 두 시는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유년시절의 고향이 시적 자아에게 행복했던 시공간으로 추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①에서는 ‘나’는 유년시절 고향 집에 대한 모습을 그리면서 살구나무에서 막대기로 살구를 떨어트려 먹을 때의 신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년시절 후각에 남겨진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작품이다. 시 ②는 시적 자아의 추억에 남겨진 집이 아예 “나의 요람”, “나의 낙원”으로 직접 언명되고 있다. 지금은 유년시절의 집이 단지 “나의 어릴 때 발자국”에 새겨져 있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는 “익기 무든 지붕”이나 “문혀진 구팡”까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기억까지도 행복한 흔적으로 새겨지게 된다. 이처럼 이들 작품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의식은 후각과 시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체험 시’의 감각적 인상을 통한 묘사의 기법이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상해체험 시’에서 상해의 이국적 풍경이 이상적인 동경의 공간으로 그려지듯이, 이들 향수의식을 자아내는 시 작품들에서 유년시절의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원초적 심성과 만나는 유토피아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시는 서로 상통하는 면을 보여준다고 하겠지만, 전자는 현재적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과 이국적 상황을 대비시킨다면, 후자는 과거의 유년시절을 추억하면서 상해의 이국적 상황과 고향 또는 고국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다.

‘고향생각 시’가 향수의식에 머물지 않고 조국애나 민족의식과 결부되고 있는 경우의 작품들을 보자.

① 푸른 물 모래를 비치고 흰돛대 섬을 감돌며,/들 건너 자지빫 봄 안개 서름 업시 올 적에,/서산에 꽃 꺾그러 동산에 님 뵈오려/가고 오는 흰옷 반가운, 아아 그 땅을 보라,/그대와 함께 가 볼거나…….

-<그 봄을 바라>에서

② 내 맘은 언제던지 저기/저기 봄에 진달래꽃 피는 땅/하늘 높고 산 그림자 푸르른/그 봄의 부름을 조차 감니다.//눈물은 시내에 떠러져 금 모래 되고/우습은 바람에 실녀 재넘어가/님 동산에 얽전한 봉사꽃 피던/꿈나라의 봄은 다시 못도라 옵니다.//다시 못 도라오는 그 봄을/꿈에나 차자볼가 하였더니/새업슨 밤새 소리에 소소로쳐/흐르는 듯한 봄달과 수작합니다.

-<그 봄의 부름>에서

위의 시 작품들에서, 시적 자아의 시선은 고향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흰옷 반가운, 아아 그 땅”과 “봄에 진달래꽃 피는 땅”으로 확장되어 있다. 여기서 ‘땅’은 자연과 인간이 태어나고 생동하는 생태적 생명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적 자아에게 ‘흰옷’의 백성이 살아온 삶의 보금자리로 다시 찾아서 누려야 할 ‘조국’에 다름 아니다. 이는 마치 이상화가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봄’조차 빼앗길까 염려하면서 말한 ‘들’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시에서 시적 자아의 조국애와 민족의식은 상당히 암시적이며 상징적인 문맥을 형성한다.

주요한 자신이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하는 작품들에 대해 언론검열을 하는 국내적 상황을 분명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그가 ‘별꽃’이란 필명으로 잡지 『창조』에 보낸 산문 <장강(長江) 어구에서>라는 글에서 “학생생활과는 판이한 일종의 충동적 생활이 눈에 보입니다. …(중략)… 쓸 데 없는 일노 발매금지나 당하면 여러분끼 미안하닛가”⁴⁷⁾라고 한 데

에서 확인된다. 주요한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비관할 것 아니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긴 것을 깨닫고, 희망과 용기를 백배할 것이오. 이런 의미로 보아서 우리 이 조고만 잡지의 사명도 적지 아닐 줄 압니다.”⁴⁸⁾라고 했다. 말하자면 문예지 『창조』의 사명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뜻을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동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혹 “충동적 생활”과 연관된 작품을 써서 잡지 『창조』가 발매 금지를 당하는 것을 피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충동적 생활”과 연관된 작품은 바로 ‘독립신문 시’에 해당되는 말일 것인 바, “충동적 생활”을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시는 피하여 비유적 문맥이나 상징을 통한 암시적 표현을 통해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형상화하는 시를 써서 송고한 것이다. 이들 시가 바로 ‘고향생각 시’의 또 다른 부류로 이후의 <마른 남게 물 주는 뜻은> 등의 시 작품들과 <부르심>의 연작 시조 등으로 이어졌다면, 먼저 논의한, 향수의식을 담은 ‘고향생각 시’는 상해시절 이전의 일어서 <옛날 어릴 때(幼き昔)>, <친구여(友よ)>(이상 『백금학보(白金學報)』 제40호, 1916. 12)과 <고향(ふるさと)>(『반주(伴奏)』 제4집, 1917 여름) 등에서 이어져, 후에 『시가집』의 <나그네> 연작 시조와 『봉사꽃』의 <망향> 연작시조 등으로 지속되었다.

IV. 마무리

이 글은 주요한의 상해시절에 쓴 시의 특징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들 위해 먼저 주요한이 상해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발표된 시(‘독립신문 시’) 텍스트를 확정하고, 상해시절

47) 주요한(별꽃), 『장강(長江) 어구에서』, 『창조』 제4호(1921. 2), 59쪽.

48) 주요한(별꽃), 『장강(長江) 어구에서』, 『창조』 제5호(1921. 3), 74쪽.

국내에 송고하여 여러 매체에 발표된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이 『독립신문』에 발표한 시는 ‘송아지’와 ‘요(耀)’란 필명으로 발표한 시 7편에 한정된다고 하고, ‘목신(牧神)’이나 ‘붉참’ 등으로 발표한 시는 주요한의 시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상해시절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 작품들이 80편을 상회하는 데 비해 ‘독립신문 시’는 불과 7편에 불과하며 일정한 기간에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호강대학 입학과 관련된 사정과 연결시켜 밝히고자 했다.

주요한의 ‘독립신문 시’는 대체로 ‘상황시’로서 감정적 흥분이 내재된 목소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시에서 경험적 구체성을 기반으로 관념적 진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난 면모를 보였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는 시적 자아와 시적 대상과의 분리 인식으로부터 오는 설득적이고 교조적인 목소리가 시의 관념적 성격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독립신문 시’는 분명 그 매체적 성격에 맞추어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구현하고자 한 정치적 담론의 작품들이지만, 그것들이 감정적 조절을 통한 시적 형상화에 실패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신문 시’는 시의 리듬과 형태, 문체 면에서 동경 유학시절에 일어로 쓴 <미광(微光)>과 국어 시 <눈>, <불놀이>로 이어지는 맥락을 형성하지만, 시의 주제적 측면에서는 일어 시 <암흑>에 이어진 작품들로 이후 시 <채석장>을 동일한 맥락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주요한이 상해시절 국내로 송고하여 발표한 시는 ‘상해체험 시’와 ‘고향생각 시’, 그리고 ‘전통지향 시’로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하여 논의했다. 이 글에서는 ‘독립신문 시’와 뚜렷이 변별되는 ‘전통지향 시’는 논외로 하고, ‘상해체험 시’와 ‘고향생각 시’의 특징과 맥락을 검토했다.

주요한의 ‘상해체험 시’는 ‘독립신문 시’와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지만, 시의 리듬과 형태면에서 자유로운 산문의 리듬에 의한 자유시라

는 점만 공유되고, 시의 어조와 문체, 묘사적 특징이나 주제적 성향에서 크게 달랐다. 시적 자아는 시적 대상인 상해의 풍경을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감정을 가능한 억제하는 한편 시적 대상을 담담하게 묘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적 대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국지향의 관점이 작동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시적 자아의 흥분된 어조가 웅변조로 토로되거나 설득적 목소리로 나타나는 ‘독립신문 시’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탈정치적인 경향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들 ‘상해체험 시’와 같은 이미지 중심의 묘사시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모색된 것이었다. 이 점은 일본에서 『현대시가(現代詩歌)』의 동인으로 있으면서 쓴 <여인(女)>, <책상 위의 정물(卓上の靜物)>, <시바세이쇼오코(芝清正公)>, <잠자는 여인(まどろむ女)> 등의 작품들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한의 ‘고향생각 시’는 다시 두 범주로 구분하여 논의했다. 한 가지는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유토피아(utopia)로서의 고향을 추억하거나 향수의식을 자아내는 시 작품들이며, 다른 한 범주는 고향에 대한 향수의식을 조국애나 민족의식과 결부시키고 있는 작품들이다.

전자의 시 작품들은 『아름다운 새벽』의 ‘고향 생각’편에 수록된 <우리 집> 등이 중심을 이루는데, 고향에 대한 향수의식이 후각과 시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체험 시’와 같이 감각적 인상을 통한 묘사의 기법이 작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상해체험 시’에서 상해의 이국적 풍경이 이상적인 동경의 공간으로 그려지듯이, 이들 향수의식을 자아내는 시 작품들에서 유년시절의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원초적 심성과 만나는 유토피아의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두 시는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었지만, 전자는 과거와 다른 현재를 초점화하고 식민지 조선과 이국적 상황을 대비시킨다면, 후자는 현재와 상반된 과거를 회상하는 한편 상해의 이국적 상황과 고향 또는 고국

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고향생각 시’에서 향수의식을 넘어 조국애와 민족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에서 시적 자아의 시선은 자연과 인간이 일체화된 ‘땅’의 인식으로 확장되고, 시적 자아의 조국애와 민족의식은 상당히 암시적이며 상징적인 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국내 매체의 언론검열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비유적 문맥이나 상징을 통한 암시적 표현을 통해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은밀히 감추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 주요한의 시적 형상화 능력은 다른 갈래의 작품들에 비해 이들 시 작품들에서 상대적이지만 돋보이는 면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고향생각 시’는 이후 <마른 남게 물 주는 뜻은> 등의 시 작품들과 <부르심>의 연작 시조 등으로 이어졌으며, 향수의식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고향생각 시’는 『시가집』의 <나그네> 연작 시조와 『봉사꽃』의 <망향> 연작시조 등으로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개벽』, 『동광』, 『영대』, 『조선문단』, 『조선지광』, 『창조』, 『폐허이후』(이상 국내 잡지, 영인본).
『독립신문』(영인본, 학교방, 1986).
『반주(伴奏)』, 『백금학보(白金學報)』, 『현대시가(現代詩歌)』(일본 잡지) 등.
이광수·주요한·김동환, 『삼인시가집』, 삼천리사, 1929.
주요한, 『봉사꽃』, 세계서원, 1930.
주요한, 『아름다운 새벽』, 조선문단사, 1924.

2. 논저

- 권유성, 「상해 『독립신문』 소개 주요한 시에 대한 서지적 고찰」, 『문학과 언어』 제29집, 문학과언어학회, 2007, 133-156쪽.
김윤식, 「준비론 사상과 근대시가 -주요한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4), 81-109쪽.
박경수,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 한국문화사, 1998, 186-192쪽.
박경수, 「1910년대 주요한의 일어서 연구」, 『외대어문논집』 제15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0, 163-183쪽.
박윤우, 「상해시절 주요한의 시와 민중시론」, 『한중인문학』 제25집, 한중인문학회, 2008, 203-221쪽.
양동국, 「동경과 상해 시절 주요한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 『문학사상』 제330호(2000. 4), 243-271쪽.
양왕용, 「주요한 시의 변모과정과 상황의식」, 『한국근대시연구』, 삼영사, 1982, 159-161쪽.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 삼중당, 1962, 261쪽.
이광수, 주요한, 김동환, 『삼인시가집』, 삼천리사, 1929.

- 이동순, 「상해판 『독립신문』 수록 시작품의 분석」,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155쪽.
- 이용호, 『주요한연구』, 동광문화사, 2002, 96-109쪽.
- 임형택, 「항일민족시, 상해 독립신문 소재」, 『대동문화연구』 제14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1. 6), 155-221쪽.
-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0, 345쪽.
- 조두섭, 「주요한 상해 독립신문 시의 문학사적 위상」, 『인문과학연구』 제11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예술문화연구소, 1993, 1-20쪽.
- 조두섭은 「주요한 상해 시의 근대성」, 『우리말글』 제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267-286쪽.
- 주요한(별꽃), 「장강(長江) 어구에서」, 『창조』 제4호(1921. 2), 59쪽.
- 주요한(별꽃), 「장강(長江) 어구에서」, 『창조』 제5호(1921. 3), 74쪽.
- 주요한, 「기자생활의 추억」, 『신동아』 제31호(1934. 5), 124쪽.
- 주요한, 「나의 아호(雅號), 나의 이명(異名)」, 『동아일보』(1934. 3. 19).
- J. P. Hunter, *The elements of Poetry*, Poetry(ed. by J. P. Hunter), New York : Norton Company, 1973, 541쪽.

<Abstract>

Ju, Yohan's poems in Shanghai and the Problems of Dual Writing

Park, Kyung-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Ju, Yohan's poems in Shanghai and its context of his front and rear poems. Consequences that have been debated are as follows.

1. Poems that are published in 『Doklipsinmun』(i. e. independent newspaper), the journal announced by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clude seven pieces which were printed in the name of 'Songaji' and 'Yo'. Those poems named 'Mokshin' or 'Bak-cham'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Ju, Yohan's, can not be considered as his real pieces.

2. Poems that have been submitted from Shanghai and then released in Korea include more than 80 pieces. Although he diminished his publishing activities for two years after he entered Hogang University in Shanghai, he vigorously started to announce his pieces right after he got into a junior in University.

3. Poems that are published in 『Doklipsinmun』, have a characteristic of occasional poetry which is written according to the feature of the media. Even though these poems implement national consciousness and patriotism, these poems are rather ideal and passionate which can be regarded as a limitation of the pieces that

* Prof.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s the tone of persuasive oratory. These poems has been rooted from the piece called <Darkness> which was written by Japanese by himself, Ju Yohan, when he was a student in Japan. Also it appears again in the poem named <Stone pit>.

4. Poems that have been submitted from Shanghai and then released in Korea can be categorized in three different groups, 'Poems of Shanghai Experiences', 'Poems of Hometown consciousness', and 'Tradition-orienting Poems'.

5. Ju, Yohan's poem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poems published in independent newspaper in the aspect of tone, style of writing, characteristics of description, and tendency of the theme. Poems that are sorted as experiences of Shanghai, describe the surroundings of Shanghai calmly in the spectator's point of view and also portray the object sensual and attractive according to the view of exoticism. His effort of seeking this kind of descriptive poems have been started after his time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Japan.

6. I reclassified Ju, Yohan's poems of 'Poems of Hometown consciousness in two different categories. First group include pieces showing hometown consciousness regarding utopia, which were extracted out from the childhood memories of the homeland. Second group contains pieces that associates nostalgia with patriotism or national consciousness. These poems encounter 'Tradition-orienting Poems' concluding 'Sijo' and poems which are based on folk songs, all of which were written after the Yohan's time of Shanghai.

Key Words : Ju, Yohan, Korean Modern Poetry, 『Doklipsinmun』(i. e. independent newspaper), Poems in 『Doklipsinmun』,

Occasional Poetry, Poems of Shanghai Experiences,
Poems of Hometown Consciousness, Tradition-orienting
Poems, Dual Writing.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24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